

제 32 기 결 산 공 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2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31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한세에스24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2 (당)기		제 31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동자산		536,847,880,768		492,735,180,528
1. 현금및현금성자산	43,149,256,644		52,560,100,189	
2. 단기금융자산	61,497,635,089		20,970,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9,449,965,990		95,636,347,930	
4.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117,067,199,375		136,759,778,915	
5. 당기법인세자산	154,762,521		8,596,910	
6. 재고자산	189,833,541,797		166,135,723,720	
7. 기타유동자산	25,695,519,352		20,664,632,864	
II. 비유동자산		336,612,465,414		284,676,900,628
1. 장기금융자산	30,000,000,000		40,434,027,089	
2. 장기성기타채권	4,597,799,107		4,031,158,074	
3. 매도가능금융자산	80,673,196,643		49,647,813,164	
4. 관계기업투자	1,007,558,564		557,384,280	
5. 유형자산	141,946,762,017		119,637,735,381	
6. 투자부동산	11,959,109,807		13,042,240,033	
7. 무형자산	38,254,070,688		38,011,386,894	
8. 이연법인세자산	10,239,820,735		9,305,058,051	
9. 기타비유동자산	17,934,147,853		10,010,097,662	
자 산 총 계		873,460,346,182		777,412,081,156
부 채				
I. 유동부채		416,125,825,872		379,717,882,302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0,659,378,821		86,581,224,111	
2. 단기차입금	261,062,780,368		232,568,805,731	
3. 파생금융부채	33,033,343		87,740,405	
4. 이연수익	23,877,189,949		22,275,701,322	
5. 기타금융부채	21,595,900		21,224,490	
6. 당기법인세부채	12,807,899,739		13,958,646,746	
7. 기타유동부채	27,663,947,752		24,224,539,497	
II. 비유동부채		85,414,257,699		66,043,331,869
1. 장기성기타채무	3,590,384,493		3,863,374,963	
2. 장기차입금	42,485,331,000		25,345,212,800	
3. 순확정급여부채	33,632,438,651		32,039,295,709	
4. 이연법인세부채	5,706,103,555		4,795,448,397	
부 채 총 계		501,540,083,571		445,761,214,171

과목	제 32 (당)기		제 31 (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2,111,135,264		165,176,888,288
1. 자본금	20,000,000,000		15,874,159,500	
2. 기타불입자본	15,860,123,604		20,087,818,399	
3. 기타자본구성요소	(3,121,308,314)		(2,864,783,099)	
4. 이익잉여금	149,372,319,974		132,079,693,488	
Ⅱ. 비지배지분		189,809,127,347		166,473,978,697
자 본 총 계		371,920,262,611		331,650,866,98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73,460,346,182		777,412,081,156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03월 26일
한 세 예 스 24 홀 딩 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동 녕 • 김 기 호

감사의견: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32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